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양석*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말라본 케손시티 빅토리 에비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모여있고 어학원까지 있는 대규모이다. 시설은 한국 대학교에 비하면 떨어지지만 나쁘지않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활기차다.
수업	하루 중 3시간 동안 1:1 수업을 하고 2시간 소그룹(6명), 3시간 대그룹 (12명)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8명 중 7명은 아주 괜찮았고 한명은 그저 그런편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생 님들은 정규 교사는 아니지만 열정이 넘쳤다. 유머감각들도 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수업이 즐겁기도 했다. 하지만 몇 몇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잘 못 만나서 수업이 별로 즐겁지 않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어떤 선생 님을 만나는 지도 파견 기간동안 얼마나 공부가 잘되는지에 중요한 요소라 고 생각된다. 과제는 일주일에 에세이 1~2개, 그리고 수업중에 끝내지 못한 내용이나 소그룹 대그룹의 경우에는 질문 형식으로 과제가 나가서 대답을 적어오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과제가 나간다. 수업은 계속 가르치는 것들이기 때 문에 따로 준비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지만 베테랑들이라 그런지 술술 잘 풀어나간다.
Activity	엑티비티로는 민도르 섬, 마닐라 투어,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민도르 섬에서 물에서 즐기는 엑티비티는 좀 비싸다 고 느껴지고 나머지는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싸 서 그런지 적당한 수준의 돈으로도 좋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다고 생각 한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가서 건조기여서 그런지 그렇게 덥다고는 많이 느끼지 못했고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있어서 춥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
안전	나는 가있는 동안 한 번도 안전에 위협을 느낀적이 없었다. 좀 위험하다고 느낀 부분은 교통부분에서 너무 질서가 없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가 원래 4인실이라는데 2명에서 사용했다. 아마 4명에서 사용하면 좁아터질것이다. 규칙은 너무 낡았다. 남녀가 한방에 있으면 안되는건 이해하지만 휴게실에서 마저도 함께 공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10시까지 들어와야해서 시간이 좀 촉박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너무 늦은시간에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에어컨이 항상 잘나와서 덥다는 생각은 거의 해본적이 없다. 그리고 매일 청소부가 청소를 해준다.
식사	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기타() 학교 식당에서 주로 먹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으나 쌀이 저렴한것이라 그런지 밥이 무척 맛없었다. 외부식당들은 한국에 비해 대부분 매우 저렴하였다. 하지만 달고 짜고 간이 썩다.
교통	시내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하다. 대부분 그랩, 우버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처음 비용이 정해져있는 콜택시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해도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는 점이 무척 좋았다. 20분거리를 가도 40분에 도착하고 1시간 거리를 간다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이 단점이므로 어딘가로 가고 싶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오고 가는것이 좋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약 470000	달러로 환전 후 페소로 환전 (약 20000페소)
합계	117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학교에서 다 교육을 해주므로 그 정도만 알고 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꼭 알고 가야하는 사항은 없고 도착해서 뭔가를 알고 싶으면 학교에 있는 가드라던가 한국인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무척이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므로 금방 다 익힐 수 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파견 기간이 4주라는 짧은 기간으로 전체적으로 영어실력이 늘었다는 생각은 안들지만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여기저기 여행하며 길을 묻거나 가격을 묻거나 음식을 시킬 때 영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영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

파견 기간이 6주, 8주부터는 주말에 외박이 가능해서 더 먼 곳으로 까지 여행이 가능할 텐데, 외박이 안되기 때문에 마닐라 근처만 여행할 수 있었다. 마닐라 근처 여행은 4주 동안 주말에만 돌아다녀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다. 마지막 주말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어딜가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다. 물가도 무척싸서 이것저것 사먹고 돌아다니기에도 무척 좋았다. 필리핀에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는데 더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도상으로 봐도 수빅은 너무 지방이므로 다른 곳으로 여행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힘들다. 그러므로 공부만 하기에는 수빅이 더 좋고 공부도 하고 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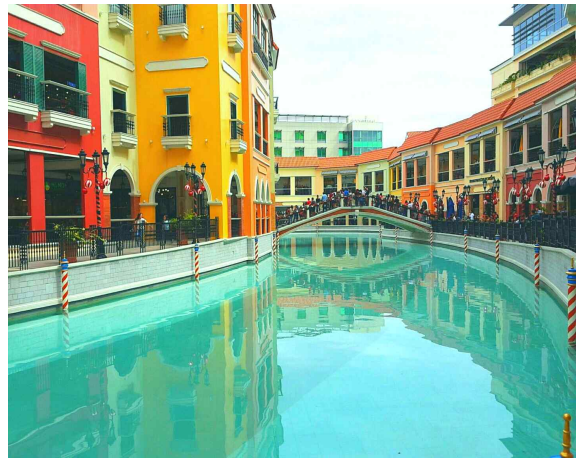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로는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서 한 달동안 어학연수도 받아보고, 여러곳을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이스트우드 시티</p>	<p>마닐라 오션파크</p>



인트라무로스



보니파시오 베니스



민도르섬



마닐라 대성당